

시간



●**창업지름신**
(이준우 외 저 | 이앤송)
창업지름신이 강립할 때 제대로 붙잡는 경험자들의 노하우를 공개한다. '기회의 머리'를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미끄러져 빠져나가기 전에, 사소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뒤집었다. 이 책은 단순한 창업경험담이 아니다. 기회를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인생을 역전시켰는지를 밝히는 '창업지름신의 간증'에 가깝다. 직장인 간식배달, 취업준비생 면접용 옷 임대, 직장 출장 요가강의, 굼벵이 갈아 만든 애견사료 등 사업 아이템 대부분이 생소하다. 40개의 창업 스토리를 읽다보면 '아, 이렇게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하고 감탄하게 된다. 책 전체를 관통하는 창업부자의 비밀을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눈7끼3'도 깨알정보다.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
(로셀라 포스트로노 저·김지우 옮김 | 문예출판사)
히틀러의 음식을 시식했던 실존 인물이자 유일한 생존자인 마고 벨크의 인터뷰를 계기로 쓰인 소설이다. 마고 벨크는 70년 간 비밀로 간직했던 이야기를 공개하면서 식사 후에는 살았다는 기쁨에 '개처럼 울어야 했다'고 고백했다. 히틀러의 음식을 감식했던 여자들은 모두 처형당했다. 마고 벨크는 독일장교의 도움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았으나 소련군에게 잡혀 14일 간 성폭행을 당해야 했다. 우리가 이 소설의 주인공 로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시대의 격류에 휩쓸려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결정할 수 없는 평범한 삶을 산 로자. 지금 이 시대에는 로자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소설의 목직한 물음이다.

양형모 기자



양형모 기자의 공소남닷컴 | 뮤지컬 '아이언 마스크'

아내 바라기·아들 바보... '삼총사 속편' 새롭네

달타냥, 아토스와 '정의' 놓고 충돌
달타냥 이진명·앤 백주연 케미 절절
철가면 쓴 필립 대사 전달은 아쉬워

뮤지컬 '아이언 마스크'는 국민 뮤지컬로까지 불렸던 '삼총사'의 나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영화로 치면 앞선 이야기인 프리퀼의 반대편에 위치한 시퀀(sequel·속편) 격인 작품이다. '삼총사'의 멤버들인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가 재소환 되지만 모두 나이가 들어 은퇴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다. 달타냥은 아토스의 뒤를 이어 총사대의 대장이자 루이 14세의 경호대장이 되고 아라미스는 신부, 포르토스는 술집 주인으로 살아간다. 아토스는 갓 총사가 된 아들 라울 보는 재미에 사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었다.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는 젊은 루이 14세의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왕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지만 달타냥은 완강하게 반대한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달타냥과 "사람을 바뀔아 한다"는 아토스의 철학이 정면충돌하는데 이는 이 작품을 관통하는 주요한 주제 중 하나다.

혈연과 사랑은 이 작품에서 던진 '정의란 무엇인가'를 발화시킨다. 총사대 현역 시절 '전설의 검객'으로 불리며 "총사는 검을 뽑을 때 죽여야 할 사람이 아닌, 지켜야 할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는 명언을 남겼던 아토스는 '지킬 것을 잃은 남자'로서 '지킬 것이 남은 남자' 달타냥과 대립한다. 작품 내내 맞서던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지킬 것'이 결국 같은 것임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상대를 향한 칼을 내리게 된다.



'삼총사'의 이후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아이언 마스크'는 리어나도 다캐프리오가 출연한 동명의 영화(1998)로도 유명하다. 신부가 된 아라미스(가운데·박상돈 분)가 군중과 함께 봉기의 합창을 부르는 장면.

아토스 역의 서범석은 과연 '전설의 아재' 연기를 보여 준다. 격렬한 분노의 화염 외곽에 웃음의 가벼움을 세련되게 발랐다. 포르토스 장대웅은 능글거림과 귀여움이라는 이질적인 결을 거부감 없이 포근 연기를 보여 주었는데, 비슷한 모습을 이전 작품들에서도 보았던 것 같다. 달타냥 이진명과 앤 백주연의 케미도 절절하다. 왕년의 '해적왕' 포르토스를 꿈쩍 못하게 휘어잡는 아내 세실 역을 맡은 이은율의 변신도 반갑다.

다만 루이 14세와 철가면(아이언 마

스크)을 쓴 채 이유도 모르고 바스티유 독방에 갇혀 살아야 했던 필립을 연기한 김동한의 경우 넘버 소화, 대사 전달, 몸의 움직임 등 전체적으로 조금씩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작품이 김동한의 뮤지컬 데뷔작인데 몇몇 보완을 거친다면 다음 무대에서는 훨씬 안정감 있는 연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토스와 달타냥의 거친 대립구도가 이 작품의 중요한 뼈대를 구축하지만 이들의 뒤에는 앤과 세실이라는 여성들이 있었다. 위대한 역사의 안쪽에는 이렇듯

현명하고 용기있는 여성들의 판단과 자기희생이 존재했다는 사실.

뮤지컬 '삼총사'를 본 사람이라면 '아이언 마스크'를 스타워즈 시리즈처럼 더욱 흥미롭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26일까지 서울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막을 올린다.

거대한 반전을 보여주는 작품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삼총사의 변신이야말로 최대의 반전이였다. 신부님이 된 아라미스 라니! 마누라에게 쥐여 사는 포르토스라고!?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비에냐프스키' 최연소 참가 한수진 바이올린 독주회

31일 19시 30분 예술의전당서 공연

유튜브에서 봤던 그녀의 연주, 드디어 진짜가 온다.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내한초청 리사이틀이 31일 오후 7시30분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린다.



한수진

한수진은 2세에 영국으로 이주해 예후디 메뉴힌 음악학교, 피엘 음악학교를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음악학을 수료했다. 런던 왕

립음악 대학원 졸업 후, 세계적인 권위의 크룬베르크 아카데미를 졸업했다.

10세 때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데뷔했으며 12세 때 런던 위그모어 홀 데뷔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낸 한수진은 13세 이후 영국 내 약 7개 이상의 거의 모든 음악상을 석권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2001년 비에냐프스키 국제콩쿠르에 15세의 최연소 나이로 참가해 한국인 최초로 2위에 올랐으며 음악평론가상, 폴란드 국영망

송 청취자상 등 7개의 부상을 동시에 석권하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한수진은 클래식 아티스트로서는 드물게 유튜브 스타로 각광받고 있기도 하다. 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클래식 음악채널 '또모'에 출연해 클래식 팬들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로부터도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은 한수진은 우리말과 영어로 진행하는 자신의 유튜브 개인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희소식 무릎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

- ▶며칠 차고있어 보니 부드럽고 시원해서 좋구나!
- ▶무릎이 편하면 만사가 즐겁고 행복하다!



착용해보니 그것참 신통하구나!

불편한 무릎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생체(生體)에너지 무릎밴드 참 무르팍엔이 출시되어 무릎이 불편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천연광물질에서 다량의 파장이 방사 및 방출되며 반성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무르팍엔에는 4가지 광물질(젤라이트, 그라파이트, 철보석, 의료용 자석)이 첨착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파이트는 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의 30배에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고가 신소재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무릎에 착용하여 생활해보시면 시원하고 가벼운 느낌을 느낄 것이며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겉옷 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고 활동성이 좋아 누구나 일상생활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무릎이 편하면 료노래가 절로 나온다

불편한 무릎을 위하여~

상담문의: 무르팍엔 1670-5467

평범하지 않은 중년을 위한 주름개선 미백크림 와~ 주름개선 정말 좋구나! 바로고 확인해보세요

주름이 없어야나이가 어리게 보입니다. 나이보다 젊어보인다는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부러움의 시선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힘이 됩니다.

50~60대가 되면 예쁘다는 말보다 피부가 좋다. 나이에 비해 젊어보인다. 동안이라든가 많이 듣기 좋습니다. 연예인들을 봐도 나이가 들어도 맑고 투명하고 주름없는 피부가 눈에 띄는데 돈이면 누구나 다 한다는 식으로 포기하고 막연히 부러워만 하십니까? 우선 나이가 어려보이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름이 없어 하고 노화현상인 주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주름의 수가 달라지고 보이는 나이가 바뀌게 됩니다. 최근 시남해인왕철협동조합과 주에이스제약과 공동연구개발한 장보고 항원크림은 항원나무 추출액을 함유한 주름개선, 피부내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재구매로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얼굴주름은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탄력이 생겨 윤기가 찰라르 흐르는 탱탱함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피부가 고약하면 캔시더 외출하고 싶어진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싶으신 분들의 전용크림 고귀하신 분들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 *1세트 정보고 항원크림 2개 + 항원나무 1개
- *판매관 서남해인왕철협동조합
- *용량 70g/개
- *제조원: 주에이스제약



남녀공용입니다. 중년 남성에게도 너무 좋아요~

어떤 명품크림들과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피부가 고약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더 쳐다본다 상담문의: 주름개선 항원크림 1600-2865

허리가 불편해 고생하시는 분~

- ▶허리건강 비밀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이다
- ▶며칠 착용해보니 그것 참 좋구나!



착용해보시고 확인하세요!

전기 없이 스스로 체온과의 열교환으로 발열되는 허리따따 발열밴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4가지 광물질(젤라이트, 그라파이트, 철보석, 의료자석 등) 중 그라파이트라는 신소재는 천연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이상 팽창시킨 물질이며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보다 30배,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물질이고 불편한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밝혀 줄 것이다. 또한 가법기 때문에 겉옷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게 착용할 수 있어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허리가 편하면 만사가 편하다!

불편한 허리를 보호해주는~

상담문의: 허리따따1600-1047